

문화광장



홍정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상으로 인지하고 대안을 형성·집행·평가하는 일련의 구현과정이다.

문제의 성립은 공동체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성립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욕구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화예술 공공의 문제는 무엇인가?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매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작성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국무조정실로 보고하고 있다. 2020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3개 성과목표·핵심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38개 성과지표가 설정돼 제도의 개선·성과·평가하게 된다. 제주의 문화예술·체육분야도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은 축제를 중심의 비중이, 체육은 생활체육에 대한 비중이 평가의 주요 지표로 표시되고 있다. 물론 결과는 '양호' 수준이다. 성과결과보고

의 본질은 성과관리이며, 핵심은 전략적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제주문화예술 기관은 제주체육계가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구현과정을 살피고 공공정책의 어젠다로까지 이끌어 내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 어느때 보다 일반시민의 생활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생활예술 활동은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Abraham Maslow 1908 ~1970)의 욕구 단계 - 1:생리 욕구 2:안전 욕구 3:애정·소속 욕구 4:존경 욕구 5: 자아실현 욕구 중 가장 최상위인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도립 서귀포예술단의 시민음악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에

술활동이 자생적이며, 여가적이며, 자립적인 활동의 관점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자아실현의 욕구의 활동이란 인식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 정책결정 모델 중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은 미시간 대학의 코헨(Michael G. Chhen 1945-2013), 스텐포드 대학의 마치(James G. March 1928-2018), 노르웨이의 정치학자 올센(Joan P. Olsen 1939-)의 이론으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행동이론 기반 정책결정을 말한다. 제주 전문문화예술 조직의 정책결정 모델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알고 싶다.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도화된, 더 큰 패러다임의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 정책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책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정책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사설

음주운전 행정시장, 시민 눈높이에 맞나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 선수생활에 치명적일만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할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에 내정된 후보자 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개방형직위 제주시장에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에 김태업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에 내정된 후보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특가법(도주차량 뺑소니)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왔으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

습니다. 두 후보자를 두고 벌써부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잖아도 공모 전부터 행정시장 내정설이 나올 때 공모제 취지를 구겨놓았을 겁니다. 문제는 '무늬만 공모'도 좋지만 음주운전 전력을 뽑았다는 점입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스포츠 세계만도 못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직사회가 음주운전자를 가법계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봉이나 정직에 처합니다. 또 세 번 이상 음주운전시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한 원희룡 지사의 공언도 스스로 뒤엎으면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행정시장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정시장에 낙점한 원 지사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 초지법, 광활한 초원지대 '버팀목'

초지 불법전용을 막으면서 원상 복구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개정된 초지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지역은 그동안 광활한 초원지대를 불법으로 전용해 월동무 등 발작물 재배로 과잉생산 문제를 야기하고, 적발 후에도 원상복구 근거 미비에 불법 경작을 일삼는 행위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초지법은 초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이 핵심입니다. 또 전용이 완료된 초지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초지법 개정은 전국서 초지면적이 가장 넓고, 월동작물 재배와 태양광발전 등의 난개발로 심각한 초지잠식을 겪는 제주시가 기존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보완하려 지속적

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작년말 기준 초지는 8758.9ha로 전국 초지(3만 2788ha)의 26.7%를 차지합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월동무와 콩 등 발작물 재배 등으로 불법전용된 초지는 759필지 461.8ha에 이릅니다. 그간 초지내 불법 경작을 해온 농민·상인은 적법시 내는 벌금보다 농작물 판매로 얻는 이익이 더 크고, 원상 복구 처분도 받지 않아 발작물을 계속 재배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작물의 과잉재배로 인한 처리난·가격폭락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개정된 초지법은 원상복구 근거 조항 마련으로 가시적인 불법전용 예방 및 단속 효과에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 초지관리실태조사도 월동작물 재배 시기인 9월 31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을 개정될 예정이어서 초지관리에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제주의 빼어난 경관 초원지대가 과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뉴스-in

행정시장 임명시 '음주자치도' 오명 우려

음주운전·소극행정 징계 추가

○...최근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이 개정되며 기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로 인한 징계처분 사항에 음주운전과 소극행정이 추가되면서 향후 행정시장 임명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

제주도는 최근 상위법령 개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

반면 원희룡 도정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후보들의 양 행정시장 내정과 관련, 제주자치도가 아닌 '음주자치도'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비등. 백관택지자

하천지장물 제거 '총력'

○...서귀포시가 풍수해·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하나가 돼 하천지장물 제거사업에 총력.

서귀포시·자율방재단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하천·소하천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고사목·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조치에 안간힘.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간자율방재 확립을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안전한 서귀포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 현행총지자

"건강 관리에 최선 다해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전 학년 등교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름철 건강·안전 관리를 당부.

이 교육감은 이날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과 돌봄, 수업 등에 노고를 다한 선생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말집도 최소화하고 함께 건강·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

특히 이 교육감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냉방기를 가동하도록 학교 현장 지원에 나서달라"며 "마스크 착용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 바란다"고 강조. 전선희지자

열린마당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지수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주시 소재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1년에 두 번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걸쳐서 부과되며,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도 된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 3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6월에

라도 연납 신청해 납부하면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6월 중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수납창구, 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고 모바일, 위택스, 지로 등의 인터넷납부 또는 ARS전화(1899-0341)납부도 된다.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신청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16~30일이다.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잊지 말고 납기일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매
• 품 목 : 윤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010-4855-601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